

국산 쌀보리 ‘베타원’

비만 · 골다공증 억제 효능 뛰어나

농진청, 지방세포 분화 억제 · 골밀도 개선 능력 밝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산 쌀보리에 비만과 골다공증을 억제하는 복합 효능이 있음을 국내 최초로 밝히고, 그 중 ‘베타원’ 품종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순천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로 ‘새쌀’과 ‘흰찰’ 등 주요 쌀보리 추출물에서 지방세포 분화 억제와 골밀도 개선 효능을 확인하고, 이를 특허 출원했다.

특히 ‘베타원’ 품종에서 비만과 골다공증을 억제하는 복합 효능이 뛰어남을 확인했다. ‘베타원’은 2015년에 개발된 찰성 쌀보리로 국내 보리 가운데 기능성분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11.4%(‘새찰쌀’ 6.5%)로 가장 높은 품종이다. ‘베타원’은 지방전구세포(3T3-L1)를 이용한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 시험에서 10μg/mL의 추출물에서도 지방세포 분화를 95%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과일세포 형성 억제 효과 시험에서도 10μg/mL의 추출물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저농도인 1μg/mL에서도 유의적인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추출물이 신호전달과정에서 골다공증을 발생케 하는 중요한 요소인 ‘NFATc1’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포와 과일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시험에서 ‘베타원’ 추출물은 각 처리 농도에서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원’은 현재 산업체와 통상실시를 맺고, 전라남도 영광군과 광주

광역시에서 100% 계약재배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 가을에는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영광군에서 30ha 재배에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진청 작물기초기반과 박기도 과장은 “이번 연구로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우수한 국산 보리 원료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를 만들고 수입 농산물과의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23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건협 전북도회, 전북도에 성금 2000만원 기탁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23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으로 인한 호우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인들이 행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이어나가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을 실천함으로써 협회가 소외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로 실

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500만원을 기부했고 2009년부터 매년 추석과 연말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금일 전달된 기부금을 포함하면 총 기부 누적액은 3억1,500만원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들이 매년 성금을 기탁해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나서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전반에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건설관련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중·고·대학생에게 매년 2,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내부 감사 역량 강화’ 계기 마련

전기안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감사업무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함중걸)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감사업무 교류와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치러진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청렴문화 확산과 내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 합동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감사 전문분야 인력 지원과 정보 교류 등에 관해 합의했

다.

함중걸 상임감사는 이날 협약에서 “청렴은 공공기관의 양심이자 책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는 데 함께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길성 상임감사 위원도 “양기관 간 감사 분야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서 상호 내부 감사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감사업무 교류와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카드 사용할때마다 생기는 잔돈 적립

전북은행, ‘잔돈적립 서비스’

전용 상품 ‘저금통 적금’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전북은행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잔돈을 적립해주는 ‘잔돈적립 서비스’ 및 잔돈 적립 전용 상품인 ‘JB 저금통 적금’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잔돈적립 서비스는 전북은행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1,000원 미만의 잔돈을 카드 결제계좌에서 출금 후 고객이 지정한 적금 또는 펀드에 적립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없어질 잔돈을 자동으로 모아준다.

적립 한도는 잔돈적립계좌별 1일 최고 1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다.

잔돈 적립 전용 적금인 ‘JB 저금통 적금’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잔돈을 적립할 수 있는 6개월제 자유적금이다. 이 상품은 별도 우대조건 없이 기본금리 연 3.50%를 제공하며 ‘잔돈적립 서비스’를

통해서만 입금이 가능하다.

잔돈 적립이 가능한 펀드로는 미래에셋 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E, 한화 글로벌엔텍트증권자투자신탁(H)(주식) C-E, 유진 챔피언 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C-E 총 3가지를 제공하며,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펀드 간 상품 변경도 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하면 목돈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서비스 및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와 상품은 현재 전북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10월 중에는 스마트폰킹 채널도 오픈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bbank.co.kr) 또는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조달청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양 기관 업무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해 2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교류... 전북조달청, 진흥원과 협약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윤대진)은 양 기관 업무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해 2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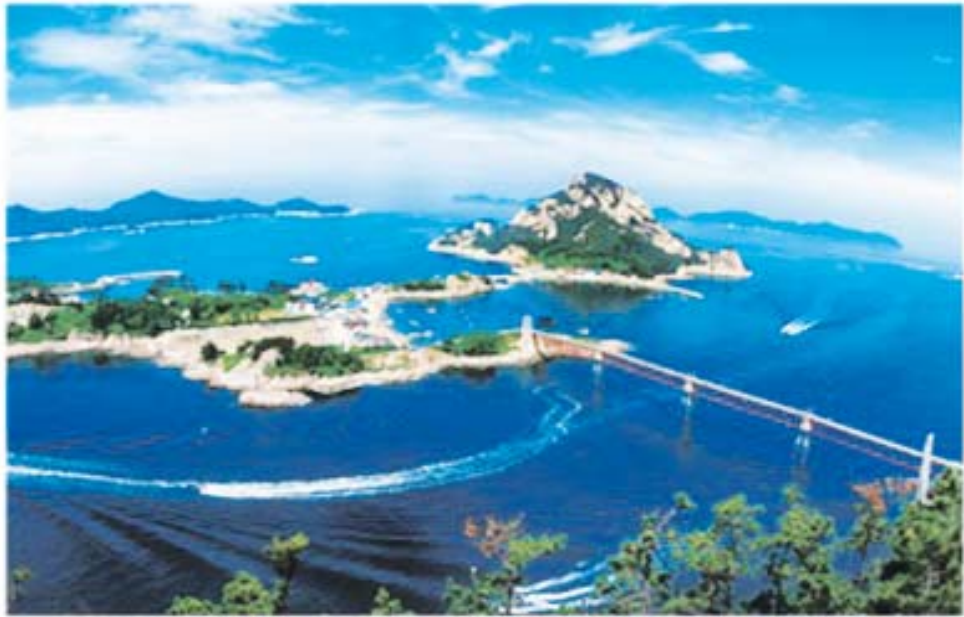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은 원료중계 공급센터, 기능성식품재형센터, 식품창업센터, HMR(가정편의식)지원센터 등 신 인프라 기반 구축을 확대해, 새로운 시설·장비 도입과 활용도 제고를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지방조달청은 올해에만 내자물품 및 시설공사 등 100억원 이상의 조달계약을 대행했다.

전북조달청은 규격서 작성, 조달요청에서 검사·검수에 이르기까지, 진흥원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one-stop 일괄 서비스 제공(가칭), 전담 직원 배치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지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흥원의 계약 및 조달 관련 유익적인 협조 ▲계약 및 조달 관련한 자문과 교육 ▲양 기관의 교류·협력 및 주요 행사 공동 개최 등이며, 진정성 있는 상호 협력과 소통의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수산인에게 풍요로움!
고객에게 신뢰감!
임직원에게 자긍심!
수산업 중심체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www.gunsan-suhgup.co.kr

한국판 뉴딜 실천 의지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형

뉴딜 선도 위한 경영방침 재수립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23일 한국판 뉴딜 실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재수립했다.

공사는 ▲네트워킹경영 ▲지속가능한 경영 ▲시장친화적 개발을 3대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저탄소, 디지털 전환, 안전망 강화 등 경영환경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뉴노멀(New Normal) 시대 진입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하부방침으로 ▲새만금형 뉴딜 선도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새롭게 추가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한국판 뉴딜 등 시대적 변화를 활용하여 새만금에 적합한 그린뉴딜과 데이터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새만금을 사람과 비즈니스로 채워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사업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는 만큼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사는 새로운 경영방침에 입각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 이행을 선도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통계분석 경진대회’ 성료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은 지난 22일 직원들의 통계 전문성 및 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2020년 통계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에는 총 11개 팀이 참가해 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팀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실시했으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SDC통계데이터센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주시 신·구도심 현황 분석’으로 전주사무소의 백은옥·유호준 주무관이 수상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수상작에 대해 포상금을 수여하고 분석결과는 직원들에게 공유해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